

2026
추석명절
가정예배

추석

秋夕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제일교회
Anyang First Presbyterian Church



since 1970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

(개역개정판 성경과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85장 다 같 이

1.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2.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3.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4.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5.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 도 가 족 대 표

성 경 봉 독 시편 1:1~6 다 같 이

¹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²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³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⁴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⁵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⁶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맺힌 열매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돌아보며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헤아려 봅시다.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주님이 주신 열매이지만, 가족이 함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평범한 일상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풍성한 열매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1편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열매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열매만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묵은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이미 주신 열매에는 감사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열매는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 곁을 떠나지 않으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삶과 가정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 도(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 다 같 이

예배를 마친 후 식사 또는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1.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봅시다.
2. 믿음을 물려준 조상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선진들의 믿음생활의 훌륭한 점을 나누어봅시다.
3.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진행 |

1. 추모예배

- 1) **추모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추모예배는 고인의 과거를 회고하고, 생전 고인이 남긴 교훈을 되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후손들이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 2) **사진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촛불이나 향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 음식은 예배 전에 차려놓아서는 안 되며 예배 후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추모예배 시간을 제사처럼 밤늦게 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 3)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 추모예배 때에 고인만을 추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2.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 1) 인도는 가장 또는 가족 중에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기도와 성경봉독, 말씀은 인도자가 하거나 가족 중에 담당자를 따로 정하셔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